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13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3.05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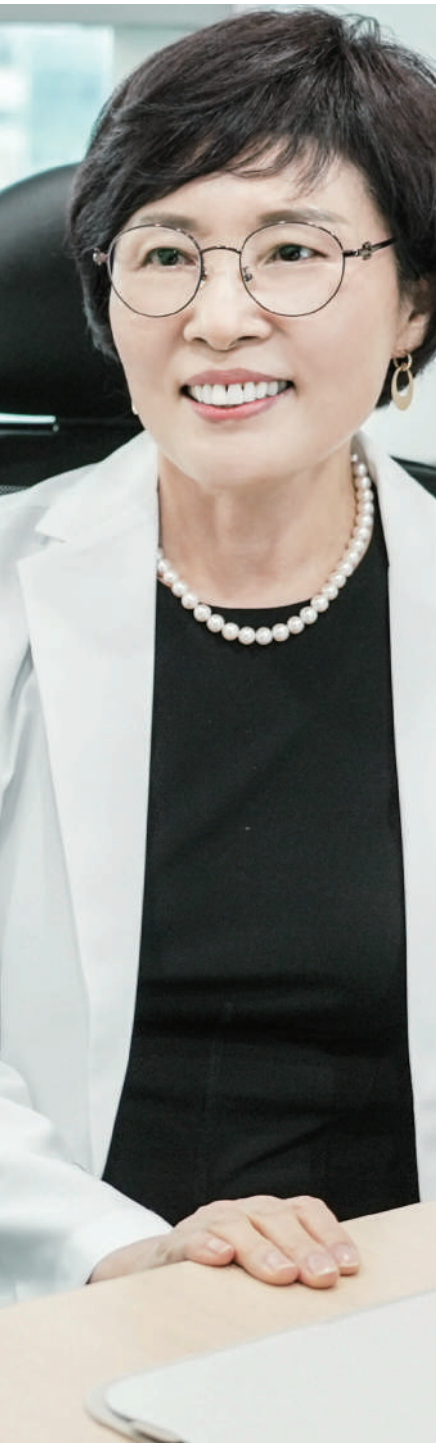


Exercise with a wearable hip-assist robot improved physical function and walking efficiency in older adults

Su-Hyun Lee, Jihye Kim, Bokman Lim, Hwang-Jae Lee & Yun-Hee Kim

Haeundae Sharing and Happiness Hospital, Pusan, 48101, Republic of Korea

Yun-Hee Kim



10년 동안 삼성전자와 보행보조로봇 개발한 결과 노인에서 보행보조로봇의 효과를 검증한 논문 발표 - 김연희 명예원장님 (05.04)

올해 3월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출시를 공언하면서 보행보조 로봇 '젼스'의 상용화 여부에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로봇 사업인 만큼 올해 안에 '엑스원(EX1·프로젝트명)이라는 보조 로봇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 EX1은 우리병원 재활의학과 김연희 명예원장님(성균관의대 명예교수)이 책임연구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검증되었고, 5월 초에 논문이 출판되었습니다.

논문의 연구 목적은 EX1을 이용한 장기 운동이 노인의 보행, 신체 기능 및 심폐 대사 에너지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고, 연구 결과 보행, 신체 기능 및 대사 에너지 효율에 주요 이점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로봇은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하고 삼성전자에서 올해 상용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9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리고 올해는 성균관대학교가 삼성전자와 운동효과를 검증하는 협력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는 두 번째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하였는데 재활의학과 김연희 명예원장님의 논문 출판 소식은 우리병원이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 있는 재활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단순히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치료를 시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국내기업 삼성전자와 함께 보행보조로봇의 효과를 검증하는 논문의 책임연구원이 함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보행재활로봇 도입

보행 재활의 신세계 '모닝워크 S200' (05.02)

5/2일 또 한 대의 보행재활로봇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미 올해 3월에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던 제38회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 'KIMES 2023'에서 선보였던 '모닝워크 S200' 로봇은 국내외 인허가를 두루 취득한 우수 제품으로 큰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모닝워크 S200은 비장애인의 다양한 보행 훈련 모드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고, 각종 수치를 세부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의 유형에 따른 참여자(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치료 프로토콜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전 버전의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중증 참여자(환자)의 탑승 및 하차모드, 보폭 조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훈련결과 리포트 기능과 VR 모드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모닝워크 S200 도입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에게 한 층 더 질 높고 안전한 보행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VR(가상현실) 훈련을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동기부여로 연결되어 한 단계 높은 치료효과와 빠른 회복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림풀빛정원 개장 및 모종심기 행사 진행 (05.25)



5/25일 점심시간에는 9층 '하림풀빛정원'에서 모종심기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9층 하늘공원이 한 달 가량의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 리모델링되었고, 직원들의 명칭공모전을 통해 '하림풀빛정원'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하림풀빛정원의 의미는 하늘과 맞닿은 생명력이 사람에게 전해져 각양각색으로 피어나는 초록풀 가득한 정원을 꾸며가는 뜻입니다.

모종심기 행사를 진행은 참여자분들의 사전에 신청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되었고, 모종을 받아들고 직접 본인의 텃밭에서 모종을 심었으며, 물주기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모종심기 행사가 식물을 키우는 일을 통해 수동적 역할에서 자연스레 벗어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자안전 & 감염관리 포스터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05.18)

환자안전 & 감염관리팀이 주관하여 2023년 4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전직원을 대상으로 포스터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였습니다.

후보작을 선정하여 투표를 시행하였고, 최종 1위~5위의
대상자에게 시상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장애수용을 넘어 일상속으로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최성호 강사) (05.20)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최성호 강사님께서 장애 후 강사로의 삶을 시작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으로서의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함, 본인의 장애 수용 과정을 참여자에게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재활치료 1팀’ 이달의 손위생 우수부서 (05.23)

5월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참여자와 고객분들의 재활치료를 담당해주고 계신 재활치료 1팀이 94.4%로 1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손위생 수행률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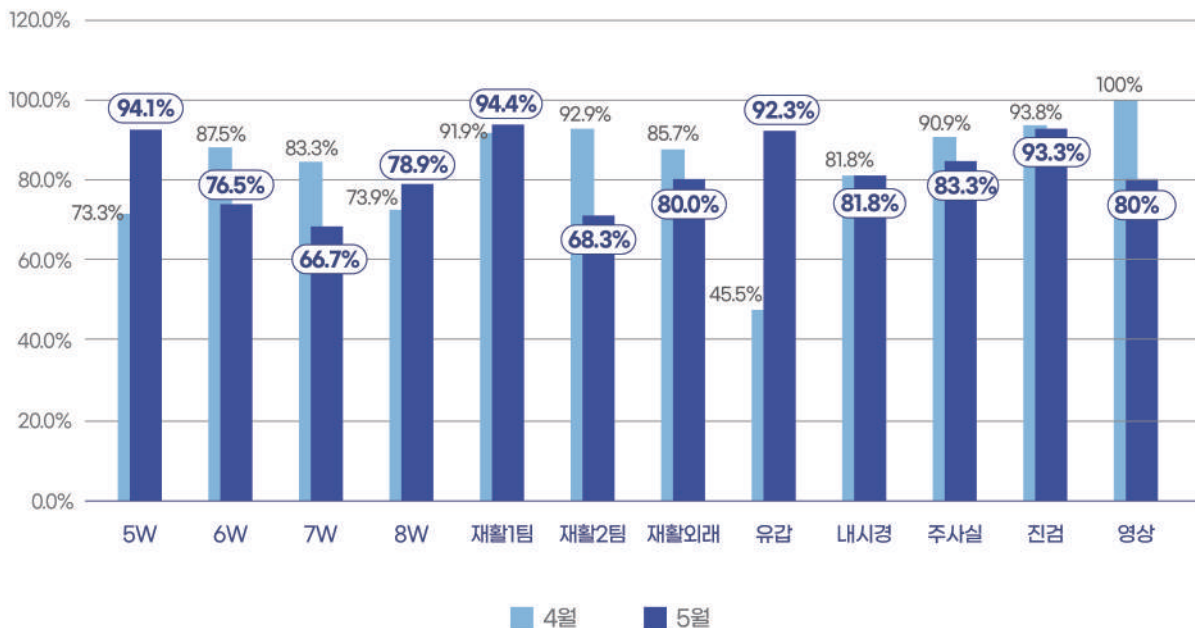
모니터링 기간	2023년 05월 01일 ~ 2023년 05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3년 4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235	197	83.8%	-1.4%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5월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



입원참여자를 위한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체험 프로그램
 (05.09~10)



일상재활센터에서는 5/9~10 이틀간에 걸쳐 입원참여자를 위해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원 후 질병으로 변화된 삶에 적응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상재활센터(낮병동)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며 공간을 이용하는 체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어버이 날 해나행 가족콘서트 '마음을 전해 봄' (05.08)



5월 8일(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마음을 전해 봄'이라는 주제로 어버이날 해나행 가족콘서트를 4층 재활치료실에서 가졌습니다. 부산 MBC 라디오 '이경의 추라이'를 비롯해 다양한 방송활동을 하시고 계신 방송인 '이경'님이 콘서트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이경님은 최고의 가수 임영웅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산에 계신 이경 선생님 사랑해요'라고 한 주인공이십니다.

1부는 사전에 참여자 및 보호자분들의 사연을 신청 받아 전하는 '이경의 추라이 라이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족에게 보내는, 본원의 원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등 저마다의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

2부는 신나는 가요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10명의 참가자가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노래를 불렀으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참가자 모두 대상, 인기상, 참가상을 수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콘서트의 묘미, 경품추천의 시간을 가지며 해나행 가족콘서트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5월도 당신이 주인공’ 어버이날 카네이션 전달식 (05.08)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60세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참여자 병실 및 재활 치료실에 방문해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 주치의가 참여자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므로써 감사한 마음 표현하고 가정의 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분들도 카네이션 생화를 직접 보고 향기를 맡으며 스트레스 완화와 기분전환의 시간을 통하여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셨습니다.



‘함께 웃어 봄’ 웃음 레크리에이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 김미애 강사 (05.06)

웃음 레크리에이션으로 5월 첫 번째 토요일을 즐겁게 시작하였습니다. 다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겨운 분위기를 유도하며 건강 박수를 시작으로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여자 3명이 노래신청을 하여 웃음치료와 음악을 통해 참여자 분들의 긍정 에너지,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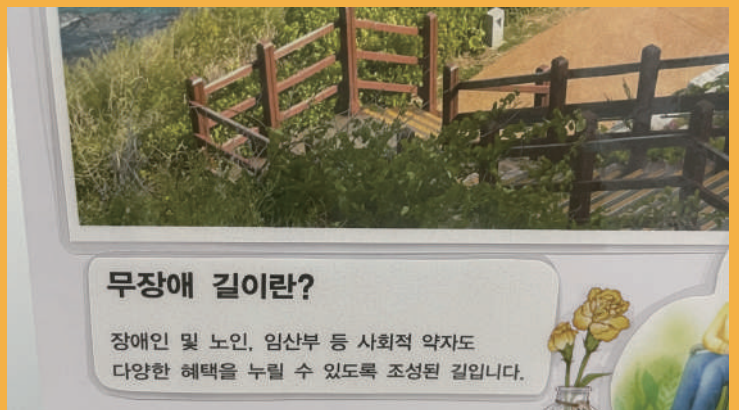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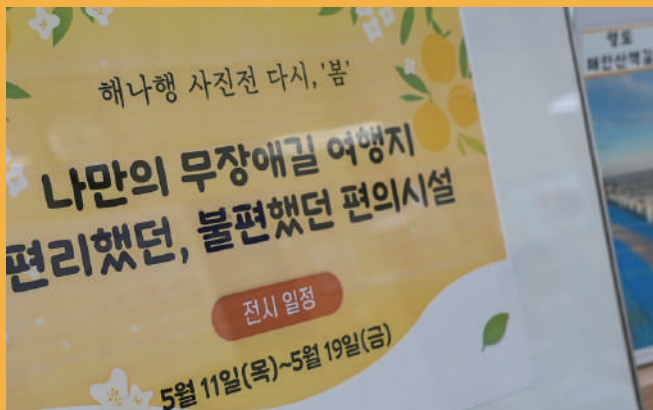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해나행 사진 공모전 : 다시, '봄' 사진 전시회 (05.11~19)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한 사진 공모전인 다시, '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나만의 무장애 길 여행지를 공유하고 편리하거나 불편했던 편의시설을 다시 봄으로써 내 삶 속,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배리어프리 시설을 자연스럽게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5월에는 보내 주신 의미 있는 사진들을 모아 5층 치료실 앞에 사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진 전시회를 통해 모두 함께 다양한 무장애 길, 편의시설 사진을 구경함으로써 재활치료 의지를 북돋우고 퇴원 후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감사함을 전해 봄' 용돈 카네이션 꽃풍선 만들기 (05.03)

이번 이벤트 프로그램은 어버이날을 맞아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용돈 꽃풍선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부모님과 먹었던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 부모님이 영웅 같아 보였던 순간, 부모님이 돼서야 이해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말 등 질문지를 돌아가며 답변하면서 가족에 대한 추억을 공유하며 그때 그 추억과 감사한 마음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직접 풍선을 늘리고 꽃을 풍선 속에 넣고 폼필드로 풍선을 불고 풍선을 묶는, 만드는 과정이 꽤나 어려웠지만 어려웠던 만큼 완성된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셨습니다.



청주 첼로재활병원에서 우리병원 견학 (05.17)

충북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재활병원 '첼로병원'의 대표원장님 포함 8명의 임직원분들이 본원에 견학을 오셨습니다.

두 병원이 비슷한점도 많고 공통점도 많아서 다음을 기약하며 일상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집단 상담 프로그램 '마음톡톡' (05.23)

4월부터 시작한 마음톡톡 2회기, 5월 23일에는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만족도 조사, 수료식을 끝으로 5회차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에는 '울 것 같아서 참여를 못 하겠다'고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야기가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와 '번개 모임'을 갖기로 하며 아쉬움을 달래야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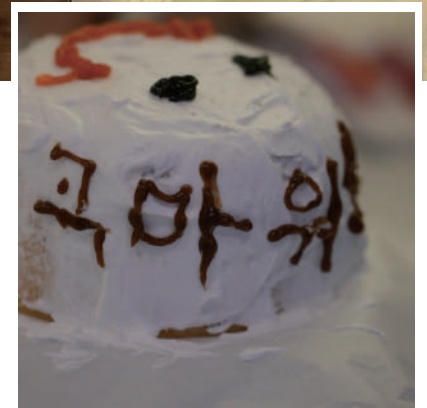
낮춤, 감정조절에 대한 어려움 등 각자의 부담감을 이겨내고 '일단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신 참여자, 보호자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울고 웃으며 지지하고 응원해 온 날들을 통해 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룹치료 프로그램 #미니 케이크 만들기 (05.17)

참여자, 보호자가 함께 모여 직접 생크림을 바르고 다양한 케이크 데코와 크림펜을 이용한 손글씨로 각자 개성을 살린 미니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를 자신에게, 소중한 가족에게, 감사한 치료사 선생님께 선물할 수 있어 즐거워하셨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



먼저 참여자 및 보호자와 함께 희망글귀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글귀를 골라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직접 생크림을 발라 정성스럽게 다듬고, 산딸기 토핑을 얹고, 크림펜을 이용한 손글씨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색다른 레시피를 공유하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고급 디저트를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하며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벤트 프로그램 #나만의 도시락 케이크 만들기 (05.25)



우리는 가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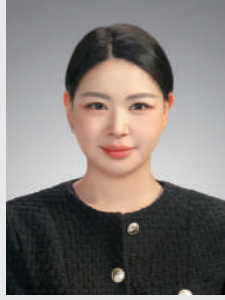
5월의 신규입사자



간호팀(8W) 김경도 간호사



간호팀(7W) 추은영 간호사



간호팀(8W) 이아림 간호사



소화기내시경센터 성감선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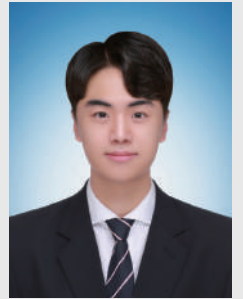
간호팀(5W) 고문정 간호사



감염관리팀 이무경 간호사



간호팀(7W) 남주현 간호사



간호팀(6W) 전찬일 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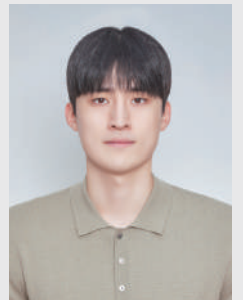
재활2팀 설동오 작업치료사



재활2팀 신대호 작업치료사



재활1팀 박 원 물리치료사



재활1팀 주지훈 물리치료사



재활1팀 박지한 물리치료사



재활2팀 정민준 언어치료사



재활의학과 공다혜 진료과장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15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 '휠체어 전달식'

(04.29)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서 오랜 병원 생활로 인해 소외되기 쉬운 참여자와 가족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5회 생명나눔 명상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걷기대회에서는 휠체어가 필요한 병원 및 개인에게 수동 휠체어 1대를 기증하는 '휠체어 전달식'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본원 입원 참여자인 한00님께서 매월 휠체어 대여비 부담감을 느끼셨던 분으로 '휠체어 전달식' 이벤트에 최종 선정되어 휠체어 대여비 부담감을 해소하고 재활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에 휠체어 배달이 완료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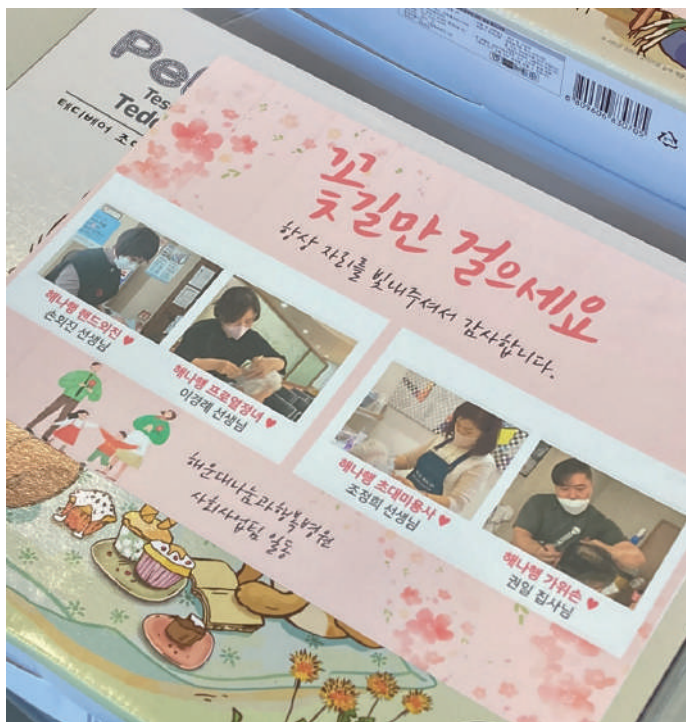
비오는날 고생하신 간호팀 ▶



찾아가는 서비스 이미용프로그램

& 이미용 가정의 달 감사선물 전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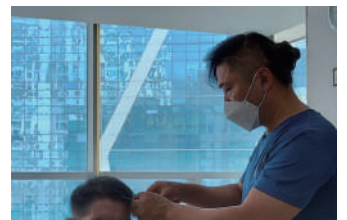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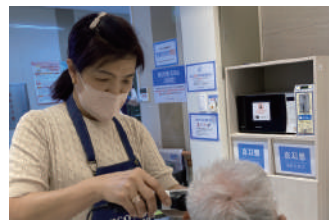
(05.16 / 05.19)



사회사업팀에서는 병원 생활 동안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달 이미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자분들을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해주심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고, 재능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69명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한 해에 이어서 입원치료 중인 참여자분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맡아 나눔에 동행 해주신 이미용 자원봉사자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일상재활센터 (낮병동)

출석왕 자립왕 수상 (0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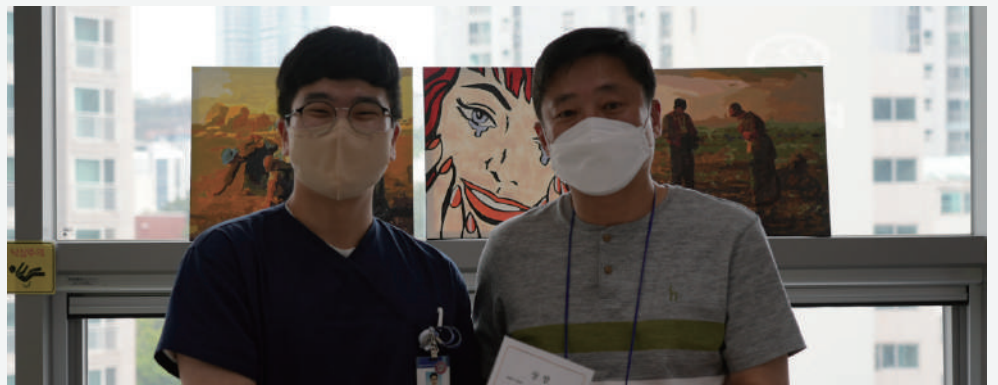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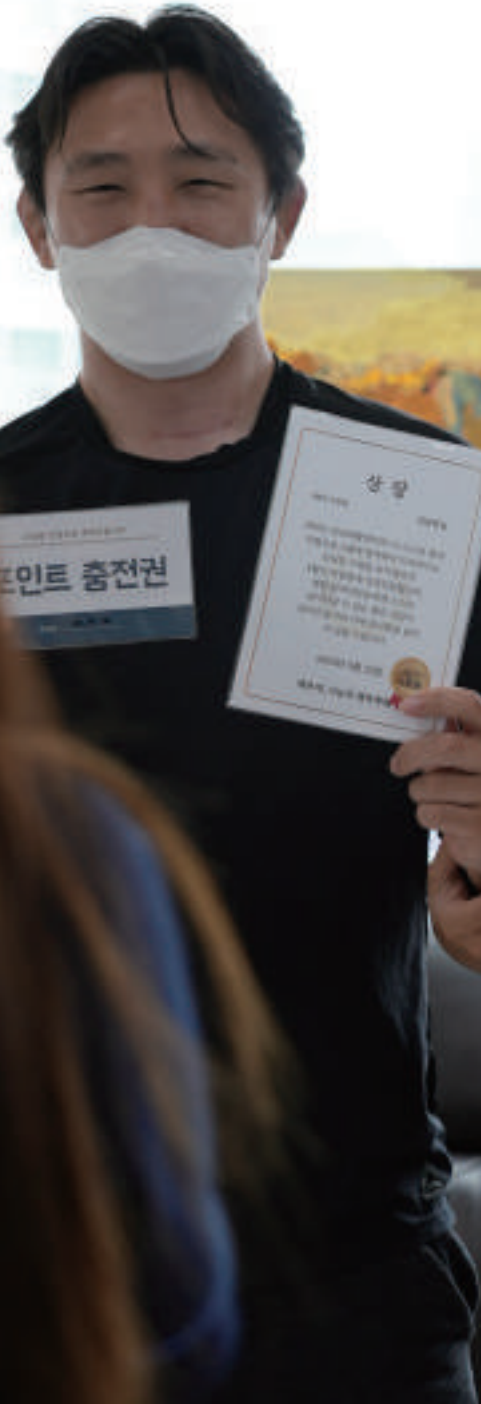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지속적으로 역할을 찾고 의미와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석왕 & 자립왕'을 매월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는 저희 병원에서 재활 훈련을 하고 계신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가 자립왕을 수상하셨는데요, 다음에는 출석왕까지 노린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계속 파이팅입니다!!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영양팀장의 말, 말, 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5.08)

‘식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내 화분만 시들시들해 지는 원인에 대한 답이며,
생명을 성장시키는 데는 무한한 사랑과 정성,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발자국 소리...

비단, 식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환자들은 의료진의 발자국 소리에 치유가 되고,
BTS는 아이들의 발자국 소리에 월드 스타가 되며,
우리들은 부모님의 발자국 소리에 멋지게 성장하여 해나행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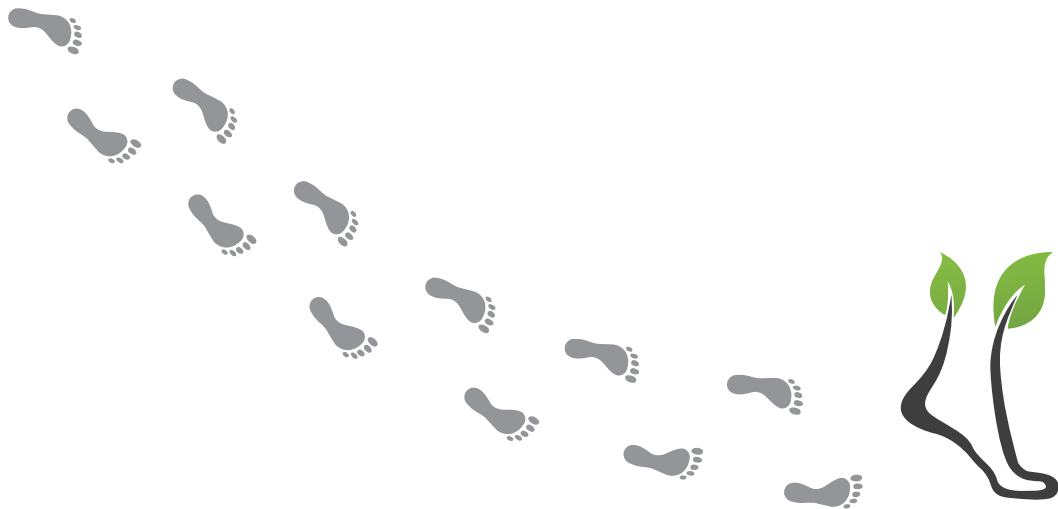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문득 여러분의 발자국 소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며,
영양팀은 그리 특별하지는 않지만 잔결음으로 만들어낸 식사를 통해
발자국 소리를 들려 드리려 합니다.

이 식사에 오늘 하루는 다른 곳으로 향해 있던 나의 발자국 소리를
우리들을 성장시킨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어버이께
나의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세요.

(신사임당과 함께하는 발자국 소리는 더 없이 완벽해 지겠죠?)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당신의 스물다섯, 스물 하나는 안녕하십니까?

추억이란 지나간 시간의 기억으로,
항상 좇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TV를 좀처럼 보지 않는다. 인기 있는 예능도, 드라마도 잘 모른다. 어쩌다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내 폰에 띄워진 예능이나 드라마를 통해 소식만 간간히 접할 뿐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알고리즘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인도하기에 충분하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이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가수가 등장하고 그의 노래를 부르는 일반인들 진짜, 가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력자와 음치를 구분해 내는 예능프로그램이다. 3년 전쯤에 너목보7 까지 방영되고 있었지만, 정규시간에 시청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니 정말 텔레비전에 무관심하긴 했다.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자우림편 실력자가 눈에 띄었다. 다름 아닌 임상병리사라는 그녀의 직업 때문이었다. 보건전문대 방사선사를 나온 나이기에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등장하면 눈길이가는 것 어쩔 수 없었다.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노래도 처음 들었다. 초반에 자우림이 노래를 부르다가 약간의 고조되었을 때 임상병리사 출연자가 부르는데, 정답은 실력자였다. 그런데, 너무 잘 부른다. 너무 잘 불렀다. 평소 자우림의 열혈 팬이라는 그녀는 본인만의 스타일로 시원스레 불렀고, 자우림은 적절한 화음을 통해 노래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보는 모든 이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고, 나는 그 영상을 그 자리에서 10번 정도 봤었던 거 같다. 그때 내 나이 마흔 넷. 나의 스물다섯 스물 하나는 어땠을까 잠시 추억에 잠겨본다.

추억이란 지나간 시간의 기억으로, 항상 좇을 수밖에 없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의 감각에 우연히 닿으면 언제 잊었느냐는 듯 어느새 그 시간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추억하게 됩니다.

—플랜투비《1°C 인문학》(다산북스)

내 스물하나와 스물다섯은 보통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군대가기전과 군대 갔다 온 후로 대비된다. 나 역시 군대라는 타임머신 전후로 개인적인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 마음가짐도 달라졌다. 군대 가기 전 나의 스물하나나 골프웨어로 장식을 하고, 바지는 체크바지가 교복과도 같았으며 머리엔 항상 칼라스프레이를 뿌리고 다녔다. 염색은 맥주와 과산화수소를 번갈아가며 셀프로 했었다. 흔히 말하는 멋이라는 멋은 다 부리고 다녔었다. 지금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은 옷을 그 당시 나이로 어울린 척하고 있었다. 웃기지도 않다.

스물다섯은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생의 신분이다. 예비역이라고 부른다. 달라진 게 많았다. 어울리지 않았던 뺨에로복을 과감히 벗었다. 가장 단정한 게 가장 멋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면 그것도 웃음거리일까? 어쨌든 청바지나 면바지로 단정하게 입고, 골프웨어가 아닌 기본 티만으로도 충분함을 느꼈다. 학교생활도 충실했고, 도서관에 지내는 시간이 늘어갔다. 수업에 충실했으니 성적도 뽐뽐했다. 모범생으로 스스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웃기다.

벌써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노래는 10년 전 나온 노래다. 노래와 이야기엔 10년이라는 터울이 있지만, 분명 타임머신을 장착할 만큼 위력을 지닌 노래임에 틀림없다. 그때 유행한 노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제목과 가사만으로도 충분했다. 내가 순간 과거와 현재를 오고갔으니 말이다.

작년 초, 2월에서 4월까지 tvN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10%를 넘으며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그런데 사실 이 드라마도 16화까지 방영되었지만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않았다. TV에 관심이 없는 건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나이니까. 그래서 내용도 알지 못한다. 그저 드라마 제목이 2년 전 들어봤던 자우림 노래랑 일치하다는 것만 기억한다. 그런데 잊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 건 뜬금없이 책이다.

유병욱 작가의 [없던 오늘]이라는 책에서 자우림의 스물다섯 스물하나 영상이 언급되었다. 자우림의 김윤아가 비긴어기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포르투갈 현지에서 부른 '스물다섯, 스물하나'의 무대에 깊이 울림을 줬다고 한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 봤다. 소름이다. 음악을 잘 모르는 나이지만 이걸 진짜 레전드라 생각했다. 그날 퇴근길, 이 영상을 대학 동창 단톡방에 공유해본다.

영원할 줄 알았던
스물다섯, 스물하나.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3년 05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